# 무주군 곳간채우기 '혼신'

## 황인홍 군수, 국회 방문
## 주요 사업 당위성 피력
## 400억원 국비지원 요청

황인홍(사진) 무주군수는 17일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종현 기획조정실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안호영 의원을 만나고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방문한 황 군수는 무주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확대 사업을 비롯한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2019년도 요구액 5억 원)과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2019년도 요구액 50억 원), 전북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2019년도 요구액 40억 원), 무주 설천 국도건설(2019년도 요구액 45억 원), 무풍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2019년도 요구액 10억 원)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29개 사업에 대한 필요 국비 4백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주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 소요 사업비 70억 원 중 국비 35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확대 사업(2019~2020, 지역밀착 생활 SOC)은 무주예체문화관을 교육과 문화, 체육,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관 조성, 문화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도서관(북카페), 작은영화관, 공연장 등 정비,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리모델링,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키즈 카페)와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회방문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무주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무주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강당에서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 영업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 무주군,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최선

##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 관내 122개 숙박업소 대상

무주군은 무주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강당에서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 영업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122개 숙박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인 박지원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업주들이 갖춰야 할 친절 마인드와 반드시 지켜야할 청결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친절과 청결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만 매번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게 된다"라며 "무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만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도 명성에 걸 맞는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무주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으로 무주군(10.13.~17.)에서는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태권도 종목에 대한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은 "이번 교육이 전국체전의 성공은 물론,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무주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복지 사각지대 월동지원 서비스 눈길

## 무주종합복지관 허브사업단
##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지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사랑의 열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무주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허브사업단 운영 일환으로 17일 설천면, 무풍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월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월동지원 서비스는 지역 활동가 들이 스스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직접 발굴해 그 의미가 매우 컸으며, 사전방문을 통해 이불, 전기매트 등 개인이 원하는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무풍면 금평리 금척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 "컨테이너에 살아서 겨울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물품을 가져다 주니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겨울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며 설천면 양지길에 김모씨는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챙겨 주니 너무 고맙다"라고 마음을 표현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프라가 형성되고 안전한 복지지대를 만들어야한다. 이번 월동지원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의 지역주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민 140여만명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댐 상류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수천㎥의 녹조가 드리워져 있다.

# 누가 용담댐을 아프게 했나

## 수천㎥ 악취·녹조로 몸살
## 축산 오폐수 방류 가능성

전북도 도민 140여만명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댐 상류(언건대교 밑)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수천㎥의 녹조가 드리워져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진안군과 상전면 중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인해 진안군은 누적강수량 300여㎜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상류이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가 넘쳤거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축산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주민 황모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언건대교를 거쳐 진안에서 일을 보고 오후 7시 쯤 다시 이곳을 지날 때 심한 악취가 풍겨 오후 7시 30분에 한국수자원공사 진안지사에 전화로 악취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당직자가 휴일이고 오후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 채봉근 지사장은 "악취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동시에 진안군과 함께 상류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오폐수 방류자는 고발조치 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장계면, 경남 창원서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장수군 장계면 주민자치위(위원장 빈중욱)는 17일 자매결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한효아파트 주차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빈중욱 장계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재근 회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이길재 장계면장, 박성숙 회원1동장 등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50여명, 장계면 7농가, 장계농협 등이 참여했다.

직거래장터는 장계면 농가가 생산한 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22가지 품목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대에 무료시식코너를 마련해 제품홍보 효과를 높이고 장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넉넉한 시골인심을 선물했다.

장계면 주민자치위와 마산 회원1동 주민자치위는 2012년 4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방문·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도·농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빈중욱 주민자치위원장은 "직거래장터는 장계의 농·특산물 판매 뿐 아니라 우리의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재 면장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 진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진안군은 오는 19일 전주시 인후 3동 현대아파트 분수대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진안읍을 비롯한 진안읍, 정천면, 주천면 등 4개면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해 12개 부스를 설치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표고버섯, 두부, 오미자, 고구마, 수삼, 꿀 등 30여 품목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생산자 또한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대면할 수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돌입

진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군은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간인 지원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75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추석 과대포장 집중 점검

진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2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